

[목회자 모임]
한 가지가 완전한 인생

2019. 4. 5. 이현래 목사

로마서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한 것이고, 땅에 있는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하늘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전부 땅에 것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현대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땅에서부터(사람에서부터) 하늘로 찾아가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신학이다. 반대로 전통적인 신학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땅에서부터 찾아가는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을 어떻게 개선시켜보려고 해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전부 땅에서부터 하늘로 찾아가는 것이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다. 인간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불교는 힌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불교까지 이렇게 찾아올라가는 것이다. 찾아서 올라가니까 실재가 아닌 것은 모두 버리고 버리고 나니까 해탈이다.

왜 불교인들에게 해탈이 필요했는가? 힌두교가 아주 복잡한 종교이다. 다신교이면서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를 숭배하는 것이 있고, 사성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으로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 가서야 종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분이 나올 법도 하다. 이것은 모두 허상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종이 어디 있었는가? 선이 어디에 있었으며 악이 어디에 있었느냐?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을 모두 제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음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 마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요즘 **스님이 즉문즉답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분노 때문에 찾아왔다고 했

다. 그 답이 원래 분노가 어디에 있었나? 분노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전해주겠다고 대답한다. 당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것이지 분노가 어디에 있던 것이냐는 것이다. 당신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대책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인생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고 마음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왜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자가 나를 지었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게 근본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모르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누가 나를 지었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 나를 지었는가?’하는 것은 ‘누가 내 아버지인가? 나의 근본이 어디인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전능하신 자가 나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두고 무슨 말을 찾아서 돌아다니느냐는 것이다. 무슨 복을 찾아다니겠으며 이런 인생이 뭘 안다고 찾아다니느냐는 것이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이 문제는 내게 아주 엄숙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어디 가서 찾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복된 말씀이 없다. 복된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복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자는 사람들이 복된 곳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복된 일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나는 진화론자든지 창조론자든지 오면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묻겠다. 내 인생을 찾으려면 누가 나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가 창조했다.’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에 근거를 하면 당연히 ‘왜 지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를 내 대신 세우기 위해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답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찾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자기를 대신하게 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자연히 또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사람을 어떻게 지었길래 그것이 가능합니까?’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다. 흙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치중립적이다. 하지만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면 흙의 가치는 달라진다. 씨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밭이 된다. 씨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흙이다. 흙의 가치는 이것이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알고 보면 나 스스로는 아무 것도 없다.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씨가 들어오면 확 달라진다. 미국에 가서 옥수수 밭을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옥수수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끝이 없었다. 굴을 심으면 굴 밭,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밭이다. 거기에 흙은 없다. 누가 굴 밭을 보고 흙이라고 하겠는가? 누가 옥수수 밭을 보고 흙이라고 하겠는가? 흙은 옥수수를 만들어내고 굴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다.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씨, 자기의 생명을 뿌려서 자기 생명을 거둔다고 생각하면 나는 밭으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임금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면 누구를 낳는가? 왕자를 낳는다. 임금에게 시집을 가면 왕자를 낳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왕비가 된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잔인하지만 왕비 간택에 나갔던 사람은 탈락하면 평생 시집을 못 간다.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부름에 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다. 잔인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다.

우리가 이 영광스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시집을 못 간다. 다른 데 시집을 갈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 하도록 발이 되어야 할 존재가 만일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 겠는가? 간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이 맛을 알게 되면 다른 데로 시집 을 갈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법으로 했지만 지금은 실재 안에서 다른 데로 는 시집을 갈 수 없다.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흠으로 지음 받았다. 영 망한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고 했다. 그것도 복이더라. 왜냐하면 영경귀 발이 되어 영 멸망했지만 그래도 흠이라는 것이다. 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얼마나 축복인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에게도 흠 은 희망이 있다. 왜? 다시 갈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된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 우리 가 이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버려질 사람이 없다. 영 쓸모없으면 흠으 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벽돌은 돌아가도 흠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흠은 영경귀가 났을지라도 영 쓸모없게 되었을지라도 돌아가면 흠 이 된다. 그러면 또 완전 다른 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너무 복된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위치를 버리고 이탈했다는 이것이 문제이다. 그것을 그대로 누렸으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버렸다. 선악과를 보이면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나갔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가? 의문스럽다. 제왕이 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자기가 뭐를 해보려고 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언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아니면 제왕이 되겠다고 생각했겠는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다는 말이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넘어갔다는 뜻이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가 기회가 없으니 그렇지 만일 기회만 있다면 자기가 왕 노릇 하고 싶지 않겠는가?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사회서든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다 자기가 왕 노릇 하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사람은 은연중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건강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그 한 가지가 없다. 그런데 건강이 좀 회복되니까 돈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이 없다. 뭘 하려고 하면 한 가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한 가지가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한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나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항상 한 가지가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돈도 못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될 텐데, 돈이 100만 원 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0만 원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성공과 실패가 여기 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될 텐데,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창조도 그렇다. 사람이 이렇게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무엇 때문에 나가겠는가? 한 가지가 모자라. 나는 왜 밭 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씨 뿌렸다가 거둬가 버리면 그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 멸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게 된다.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까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없어서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전부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전부가 없는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전에 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었으면 뭘 하겠는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으면 뭘 하겠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뭘 하겠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 냈으면 뭘 하겠는가? 자기가 뛰어내리지 못하는데 뭘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흠이더라. 흠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다른 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활하게 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르게 사용한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사신 후에는 한계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서는 우리와 연합이 불가능하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그분으로서는 우리와 연합이 불가능하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분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포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절로 다 연합이 된다. 연합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아다닐 것이 없다. 찾아다녀봤자 내가 연합할 수 없는 예수밖에 찾을 수가 없다. 그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겠는가? 그러나 십자가에 가서 보면 그분과 나는 하나이다. 얼마나 쉬운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참 중요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했다. 원래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랑하려면 거기서 자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안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고, 의를 자랑할 수 있고,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고, 구속함을 자랑할 수 있다.

지혜도 별것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지혜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뛰어내리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면 지

혜로워진다. 힘이 있으면 미련해진다.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힘이 빠지면 지혜로워진다. 야곱을 보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혜로워진다. 이삭을 보라.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지혜로워진다. 아브라함을 보라. 모든 것이 끝나니까 지혜로워진다.

사람은 지혜를 어디서 만들어 내려고 한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C.C.C.에 있던 간사 중 잠언박사라는 간사가 있었다고 한다. 너무 잠언을 많이 읽어서 잠언박사인데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한다. 지혜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혼했다. 지혜로우면 이혼을 하겠는가? 미련하니까 이혼을 한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치가 바르게 되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

우리말로 분수를 안다고 한다. 분수를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누가 분수를 알고 물에 뛰어들겠는가? 누가 분수를 알고 불에 뛰어들겠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다. 그리스도가 내 지혜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내 운명을 대표하고 있는 그분이 나의 지혜이다. 거기서 우리는 지혜로워진다.

병원에 가서 참 억울한 때가 많은데, 의료진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당장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 나는 거기서 약자이다.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다. 죽으려면 몰라도 살려면 큰 소리를 못 친다. 아주 간단하다. 지혜라는 것이 간단하다. 자기 분수를 알면 지혜로워진다.

이번에도 옆구리에서 물을 빼는데 침을 찌르기가 어렵다. 간신히 찌러서 물을 빼면 빠지다가 멈춘다.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세 번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시술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의사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고 자기한테 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 번째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막힐 수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다. 비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물을 안 빼면 죽으니까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시술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고 하는 것이다. 대번에 두말없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나는 시술을 받으러 왔는데 세 번째니까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말 못한다. 아무 말 못 한다. 그냥 ‘예, 예.’ 그
래야 되지 거기서 이유를 되면 나만 손해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병원
에서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이다. 내 생각이 틀려도 할 수 없다.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못을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이 신분을 상실했다. 내 분수가 있다. 딱 한 가지
모자라는 분수가 있다. 하나님 같지 않은, 씨가 아닌 그것이 있다. 씨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나는 씨가 아니다. 씨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나는 씨가 아니다. 인
간은 씨가 아니다. 이 한 가지가 모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모자라
는 것을 탄식하고 있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이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을 기회로
여기면 성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구속주가 된다. 우
리도 마찬가지로이다.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의정이 되어도
한 가지는 모자란다. 그 한 가지를 채우려다 역적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똑같
다. 영의정이면 이보다 더 영광스런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왜 임
금이 안 되었을까? 왜 나는 임금 밑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다.

아담은 결국 역적이 된 셈이다. 삼족을 멸해야 되는 죄를 진 것이다. 역적은 무
자비하게 능지처참하고 살던 집은 파괴해서 우물을 파고 삼족을 다 멸한다. 우리
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항상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는다. 언제나 묻
는 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말했다.

벗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옷을 벗었다는 말인데 옷은 신분이다. 신분이 없어졌다
는 말이다.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 부여받은 가장 좋은 신분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한다. 신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으로도 두
려워하면 안 된다.

루터가 그랬는가? 종교의 본성은 두려움에 있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신을 믿

는다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 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갈치면 넘어간다. 당신 이러면 멸망이고 지옥 간다고 하면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다 넘어간다. 왜?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행위를 잘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른다. 왜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던가? 그 위치가 당당하기 때문이다. 위치가 당당하면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 그런데 위치가 이탈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맨 처음 입혀준 옷이다. 두 번째 입혀준 옷이 제사장의 옷이다. 제사장의 옷은 의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이다. 그것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만 것으로 단장했다. 일부러 백성들 사이에서 걸어 다닌다. 방울을 달아서 째랑째랑 소리가 나면서 옷을 입고 간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는 그 말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무슨 옷을 입고 다니겠는가? 신약 시대에 와서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겠는가? 경건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겠는가? 무엇을 입고 다니겠는가? 믿음이 좋다하고 나가보라. 당장에 걸린다. 나는 경건하다고 나가보라. 당장에 걸린다. 세상이 더 먼저 안다. 우리가 입고 나갈 옷은 다른 옷이 없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뛰어내리지 못한 그것이 그분의 당당한 옷이다. 가장 완전한 옷이다. 우리의 옷은 그것이다. 그것 말고 다른 옷을 입으려 하면 우리는 빗나가 버린다. 아담과 똑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우리가 흠이라는 것을 옷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고 말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사실이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선포되어야 한다. 먼저는 교회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세상에 되겠는가? 안 된다.

예수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확실한 신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확실한 신분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회복시키는 일이다.

불변하는 위치, 인생의 불변하는 위치,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위치,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위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위치, 이것만이 영원히 변치 못할 위치이다. 우리 인생에 변치 못할 위치이다. 우리는 이 위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거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거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 그러면 산다. 장대에 달린 뱀이 예수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니까 그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하여 맨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불완전해졌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다.

희랍인들은 끝없이 온전함을 찾는다. 완전한 것, 절대적인 것, 진리를 찾는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불완전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1000만 원 있을 때는 1억, 1억이 있을 때는 10억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가도 온전해질 수 없다.

돈이 없다는 사람을 보라. 만 원이 있을 때도 돈이 없다고 했다. 100만원이 있을 때도 돈이 없다고 했다. 1000만 원이 있을 때도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1억이 있으면 더 없다고 한다. 더 없는 것이 심해진다. 10억이 있으면 더 없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설정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가도 완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세계로 사람들을 몰아 놓으면 안 된다. 사람들을 그런 데로 몰아 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거기서 나와서 사람 본연의 위치로 신분을 회복시켜야 된다.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위치로 말이다.

창조는 바꿀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를 바꿀 수 없다. 한 번 창조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소나무를 잣나무로 만들 수가 없고, 잣나무를 소나무로 만들 수가 없지 않은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위치가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바꾸겠는가?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이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망하는 것이고, 소망으로 생각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는 대열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왜 왔는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셨겠는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왔을 것이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으려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와 궁합이 잘 맞아서 나는 '원상으로 돌아가자, 원상을 회복하자.' 하는데 오셨다. 여러분과 나는 인연이 딱 맞는 것이니까 우리는 연합이 가능하다.

이 연합, 이 세계가 최종적인 세계이다. 왜냐하면 연합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독존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참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멸망이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혼자 똑똑하면 뭘 하겠는가? 혼자 완전하면 뭘 하겠는가? 생육이 안 되는데 말이다. 지식은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육이 안 된다.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

요즘은 너무 똑똑한 사람은 결혼을 못 한다.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년씩 살아보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완전할까? 그래도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모자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다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 여자가 돈도 잘 벌고, 혼자 아기도 낳을 수 있으면 뭘 하려고 결혼 하겠는가? 혼자 아기를 못 낳으니까 결혼하는 것이다.

둘이 연합해서 아기를 낳는 세계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계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잘난 사람만 몇 명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도를 통해서 정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고 거리낄 것이 없고 완전 자유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는 참 잘 할지 모르지만 너의 후손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너는 후손이 없어... 후사가 없어...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믿었으면 뭘 하겠는가? 후사가 없으면 그만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열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아들을 열두 명 낳았기 때문이다. 좌우간 옆치락뒤치락 하면서 낳았는데 열두 명을 낳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이다.

우주적인 문제는 연합이 되어야 해결된다. 한 가지가 없는 사람,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 한 가지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히 한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가 없어서 늘 실패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와 보니까 한 가지가 없는 것이 복이다. 내가 만약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던 것이 여기로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왜 항상 한 가지가 없는가? 항상 한 가지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복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내가 예수와 연합하다니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따라가 보겠다고 애를 썼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참 좋은 말인데 그것이 되는가?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막 애를 썼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두 배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잘되고 천국에도 잘 가기를 바라니까 욕심이 두 배라고 한다. 정확한 불교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욕심이 많다. 안 될 것을 되게 하려고 부처님에게도 가보고, 하나님에게도 가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좀 고상해서 다른 방향으로 안 될 것을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것이 축복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사

람은 당장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면 항상 뭐가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목회를 하려는데 방언이 안 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때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았다. 다른 것은 다 있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C.C.C.에 가니까 믿음이 좋으면 된다고 했다.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되었다. 믿음이 특별하게 안 되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안 되었다. 어디든지 가면 항상 한 가지가 모자랐다. 나는 그 세계에서는 영원히 실패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예수와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우리는 모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보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거대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 안에 있는 나로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해도 예수가 자랑되고, 예수를 자랑해도 내가 자랑되니까 늘 자랑하고 싶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다. 참 이상한 일이다.

더구나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하여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제도 누가 왔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특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 안 하면 내가 큰 일이 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복음, 복음, 복음... 어떤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트를 치고 다닌다. 나는 그것도 안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좋은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랬다.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이 없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이 없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우주 안에서 자기 백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내라고 표현하든지 신부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 우주 안에 자기백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이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축복을 살았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았을 때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우리는 잘못 했으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나도 못 가고 남도 못가는 곳에 밀어 넣고 말 뻔 했다. 나도 못 가면서 그것을 계속 하자고 강조할 사람이었다. 못 하면서도 말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못할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할 수 없다. 나에게 가장 쉬운 것,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한 것, 이것을 전파해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합격하기 원한다면 시험을 없애 버려야 한다. 그것 밖에는 길이 없다.

요즘에 중학생들은 무시험 입학을 한다. 고등학교도 무시험 입학을 한다. 옛날에 서울 갔을 때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가방을 잔뜩 매고 밤 10쯤에 집으로 돌아온다. 중학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때가 있었다. 거기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해방인지 모른다. 고등학교까지는 무시험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시험지를 내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험지를 만든 것이다. 기독교는 유태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태교의 잔재가 남아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바울이 율법과 부딪쳐서 고생한 이유는 출처가 유대교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출처가 힌두교이니까 헛것을 제거하느라 싸운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태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과 싸운다. 우리는 율법과 싸울 일이 아니다.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1,2,3장은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신화니 어찌니 하는데 신화라도 좋고 뭐라도 좋고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할 수 있는가 싶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도 창세기 1,2,3장을 완전히 속에 다 있게 삼켜라. 모든 대답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또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